

# 고교 수험생 고품격 진학지도 받는다

## 도교육청, 이달 30일까지 총 7개 권역 99교 고교 진학부장 권역별 협의체 구성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진학 부장들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 2018 학년도 대입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학부장 권역별 협의체는 지난 20일 1권역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총 7개 권역 99교에 대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1권역은 전주 일반계 24교, 2권역(21일)은 군산 일반계 9교, 3권역(23일)은 익산 일반계 14교, 4권역(24일)은 정읍·고창 18교, 5권역(27일)은 남원·임실·순창·장수 13교, 6권역(28일)은 김제·부안 12교, 7권역은 완주·진안·무주 12교 등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역별 협의체에서는 △협의회 활성화 방안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대입 지원 전략 방안 △수시·정시 대비 권역별 진학 상담 방안 △권역별 학생·학부모 입시설명회 시행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를 대비해 효율적인 진학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진학부장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간담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1일 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형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융합사업 단장, 도내 가상증강현실분야 20여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전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해법 찾기 나서

## '2017 세계 물의 날' 기념 수돗물 이용 활성화 방안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주시가 '2017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전주시민들의 수돗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찾기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21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관여상수도를 생산하는 K-Water, 수돗물을 배수지부터 최종 수도꼭지까지 공급·관리하는 전주시, 시의회, 소비자, 수자원전문가,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전주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직접 음용률과 끓여 마시는 간접 음용률

이 각각 5%와 55%에 불과한 수돗물 이용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돗물 이용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과 시민 참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명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상수도 현황과 상수도 정책을 분석하고, 수도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시민의 참여를 통해 떨어진 수돗물의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재홍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팀장도 '전주시 수돗물 관리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주시의 상수도 현

황과 현재 수질관리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상수도 전편 개량을 통한 건강한 수돗물 공급방안과 전주시의 향후 수돗물 관련 추진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보급 전복소비자정보센터장의 '전주시민 수돗물 이용실태조사' △곽동희 사내대 교수의 '전주시 수돗물 행정진단과 제언' △최준혁 K-water 금·영·섬 권역본부 수환경센터장의 '건강한 수돗물 시민 인식 개선활동' △허승복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의 '전주시 수돗물 정책 개선 방안' △홍순옥 전북환경연합 운영위원의 '시민이 느끼는 전주시 수돗물 정책'을 각각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김민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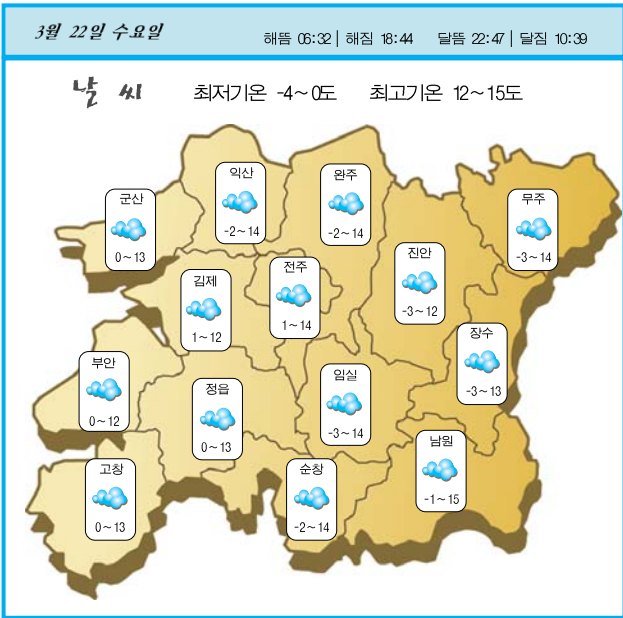
#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소 공고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2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험은 내달 8일 전주이중중학교, 전주남중중학교, 전주교도소 송천정보통신학교 등 총 4개 고시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지역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 장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볼펜을 지참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1교시 응시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해당 고시장 고시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93명, 중졸 283명, 고졸 808명 등 총 1,164명이 지원했으며 시험시간 중 고시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위한 민원편람 발간

전북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17년 민원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민원편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본원칙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처리하는 98종의 민원 서식을 수록하였다. 또한 민원처리 빈도가 높은 주요 민원 업무 15건을 별도로 안내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개정된 민원편람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자료실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자료를 손쉽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편람 발간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품격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A등급(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소통의 장 '캠퍼스 텃밭' 분양

## 105 구획 분양...25일까지 소통복지부로 신청

대학과 지역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대 캠퍼스 텃밭이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분양된다.

지난 2015년 전북대가 지역민과의 소통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캠퍼스 텃밭은 지난해 100여 구획이 분양돼 시농식과 가을감미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레지던셜 킬리지 참여 학생들에게는 비교과영역 체험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 역시 1,430㎡ 면적에 모두 105 구획의 캠퍼스 텃밭을 마련, 지역민들에게 확대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되는 텃밭 규모는 1구획 당 약 13㎡이며 사용료는 3만5,000원이다. 분양신청은 1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전북대 소통복지부 홈페이지에 서 내려받아 이메일(sobk@jn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최종 선정은 20일 오전 11시 소통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4월 29일 캠퍼스 텃밭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시농식 행사를 갖고 1년 동안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다.

전북대는 개인텃밭과 텃밭 가꾸기 가이드 자료, 기초 농사법 교육과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남호 총장은 "캠퍼스 텃밭은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학과 지역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다"며 "텃밭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교감도 더욱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